

전북 지역혁신 대회

글로벌 지식기반시대
전북경제의 발전비전과 전략

2006. 9. 5.

산업연구원 원장
오 상 봉

<목 차>

I. 글로벌 지식기반시대의 도전과 과제	1
1. 국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	1
2. 우리나라 산업의 주요 과제	3
(1) 성장잠재력의 제고	3
(2) 부문별 양극화의 해소	7
II. 미래 한국산업의 발전비전과 정책과제	11
1. 한국 경제의 위상과 특징	11
2. 2020 한국산업의 미래상	15
(1) 산업 부문	15
(2) 대외부문	17
(3) 한국 주요산업의 2020년 세계적 위상	18
3. 향후 10년간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 산업군	20
(1) 신기술산업군	20
(2) 부품소재산업군	20
(3) 지식서비스산업군	21
III. 전라북도 발전비전과 전략	22
1. 전라북도 지역의 경제현황과 문제점	22
(1) 전라북도 지역의 경제현황	22
(2) 전라북도 경제의 문제점	31
2. 전라북도 경제의 발전여건 분석	34
(1) 경쟁우위 요소	34
(2) 제약 요소	36
(3) 발전잠재력 종합평가	39
3. 전라북도의 발전비전과 전략	42
(1) 발전비전과 주요 추진 전략	42
(2) 전략산업 육성계획	43
(3) 향후의 산업발전 추진방향	47

I. 글로벌 지식기반시대의 도전과 과제

1. 국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

- 세계시장 통합 가속화와 '친디아'의 부상
 - WTO 출범과 FTA의 확산 등에 따라 세계경제는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어 가고 있으며, 재화·자금·정보가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 도래
 -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자 거대한 내수시장으로서, 인도는 IT산업(특히 SW부문)을 중심으로 잠재적인 경제대국으로 급부상
- 정보화·지식기반 사회로의 이행과 신기술간 융합화
 - IT혁명(디지털화, 네트워크화)의 진행으로 정보가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뛰어넘어 순식간에 전달되는 유비쿼터스 정보·지식기반 사회로 이행
 - 기술혁신은 IT내에서만뿐만 아니라 생명(BT), 에너지·환경(ET), 소재·나노(NT)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신기술간 융합화를 통해 새로운 대규모 산업과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
- 저출산·고령화 추세 확대
 - 선진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65세이상 노인 인구가 총인구 중에서 점하는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는 반면 젊은 층 비중은 크게 줄어드는 추세
- 환경·에너지 등 범지구적 차원 문제의 증가

- 화석연료 등 자원의 대량소비와 물질의 대량폐기·배출로 인해 환경문제가 전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원유 등 에너지의 공급부족과 가격 급등에 따라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가 세계적으로 중차대한 과제로 부상

□ 글로벌 소싱의 증가

- 개방화와 세계화로 상품·서비스·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표준화로 세계 도처에서의 대량생산이 가능해지자 다국적기업들은 인력·자본·자원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가속화

- 대기업들이 원자재 조달에서 제품배송 등의 공급망(Supply Chain) 전 단계에 걸쳐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소기업들이 다른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 하청생산이나 아웃소싱을 통해 수직통합되는 추세

- 다국적기업은 생산거점을 비용이 저렴한 국가로 이전하거나, 생산요소 등을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아웃소싱 함으로써 국제분업상의 이익을 극대화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

- 이에 따라 기업의 구매활동 범위를 범세계적으로 확대하여 조달비용의 절감을 도모하는 글로벌 소싱이 증가

- 오랜 역사를 지닌 글로벌 소싱은 최근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업, 신기술산업에서도 증가 추세

- 이는 생산성 제고와 비용 절감을 통해 경쟁기반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에 효율적으로 진입하도록 촉구하는 시장의 압력에 기인

- 글로벌 소싱의 확산은 국내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게 기회이자 위협으로 작용할 전망

- 국내 중소기업이 전문화와 협업화를 통해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신속하고 유연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경우 글로벌 소싱은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증대,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을 촉진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
- 그러나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신흥개도국 기업에 비해 떨어지고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현지화 등이 확대될 경우 글로벌 소싱 참여 기회의 상실로 인한 수출 둔화, 투자 부진과 실업을 유발할 우려
- 국내 기업이 해외조달만 증대하고 선진국기업의 글로벌 소싱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국내 생산기반의 위축을 초래
- 특히 세계화 역량이 부족한 2차 및 3차 중소부품업체의 도산이 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는 완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의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

2. 우리나라 산업의 주요 과제

(1) 성장잠재력의 제고

요소투입형 성장의 한계

- 외환 위기 이후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세계화, 중국경제의 부상 등으로 기업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에 대한 우려와 함께 성장전략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
- 특히, 중국경제의 부상은 요소투입 중심의 경제성장에 의존하던 한국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어 혁신주도경제로의 전환이 시급
-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19년에는 고령 사

회에,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 65세이상 인구비중: 7.2%(2000년) → 14.3%(2018년) → 20.8%(2026년)

○ 이러한 고령화 추세와 출산율의 하락으로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이 둔화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경제성장에 있어 노동의 역할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생산성 향상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부각

○ 또한, 그동안 자본투입위주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받아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이는 상황

- 이에 따라, 기술혁신의 뒷받침이 없는 한 과거와 같은 높은 자본투입의 증대를 기대하기는 곤란

* 자본의 생산성 증가율 추이: 1970년대 -5.9%, 1980년대 -2.6%, 1990년대 -3.7%, 2001~2005년 -0.8%

- 더욱이, 최근에는 기업가정신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투자심리의 회복 또한 부진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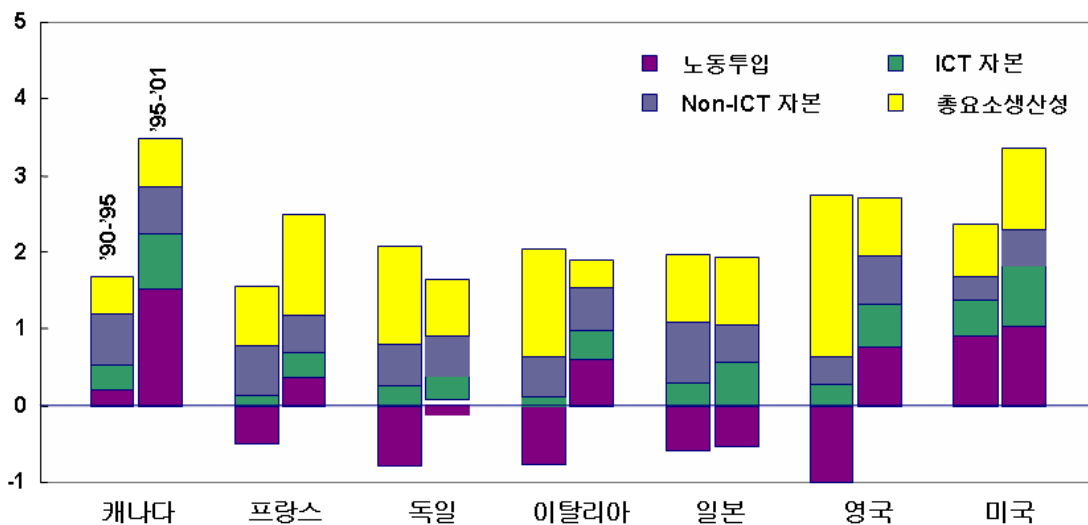
□ 총요소생산성의 하락

○ 우리 경제가 양적 성장기에서 질적 성숙기로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생산요소의 양적 투입보다는 생산요소의 효율적 이용이 중요

- 일찍이 미국의 크루그만(Krugman)교수 등은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국가들의 경제성장이 지나치게 요소 투입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성장의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고 경고

- 요소투입형 성장전략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대표하는 총요소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
 - 총요소생산성은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의 총체적인 생산성 또는 기술진보를 포함하는 경제 전체의 포괄적인 생산성을 의미
 - 1990년대에 OECD국가를 중심으로 나타난 신경제(New Economy)의 대두는 총요소생산성 증대에 의해 뒷받침
 -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은 90년대 후반에도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가 높아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하여 높은 성장세를 유지(<그림 I-1> 참조)
- 노동변수로서 취업자수를 사용하여 총요소생산성(TFP)을 측정할 경우,
 -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1970년 이후 2005년까지 연평균 1.9% 수준

<그림 I-1> OECD 국가의 성장요소 기여도 변화



자료 : OECD

- 기간별로 살펴보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1970년대 0.5%에서 1980년대 3.4% 수준으로 확대되었으나, 1991~2005년의 기간에는 1.9%로 급속히 둔화
- 1970년 이후 우리 경제의 평균 성장률은 6.7%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순자본스톡의 기여도(율)는 3.0%(45.2%)에 이르고 있고, 노동과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율)은 1.7%(25.9%)와 1.9%(28.9%)에 불과
- 이는 그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이 주로 혁신의 개념을 포함하는 총요소생산성보다는 주로 노동 한단위당 자본스톡의 증가에 기인한다는 것을 의미

<표 I -1>

성장요인별 증가율 및 기여도(율)

단위 : 불변기준, %

		1971~2005	1971~1980	1981~1990	1991~2005
증가율	국내총생산	6.7	7.0	8.4	5.4
	순자본스톡	10.6	13.0	10.8	8.8
	노동	2.5	3.5	2.8	1.6
	TFP	1.9	0.5	3.4	1.9
기여도	국내총생산	6.7	7.0	8.4	5.4
	순자본스톡	3.0	4.1	2.9	2.4
	노동	1.7	2.4	2.0	1.1
	TFP	1.9	0.5	3.4	1.9
기여율	국내총생산	100.0	100.0	100.0	100.0
	순자본스톡	45.2	58.2	35.2	44.4
	노동	25.9	34.1	23.9	20.8
	TFP	28.9	7.7	40.8	34.8

- 주: 1)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성장회계모형에 기초하여 Törnqvist 방식에 의해 산출, 노동소득분배율로서 (피용자보수/국내총부가가치) 비중에 [(자영업주수+임금근로자수)/임금근로자수] 비율을 곱한 수치를 사용
- 2) 자본스톡은 순자본스톡으로서 1977~1987년, 1987~1997년의 기간에는 통계청의 국부조사결과에 기초하여 기준년접속법(한국은행의 연도별 고정자본소모 고려)에 의해 산출하였고, 1997년 이후의 기간에는 한국은행의 연도별 고정자본소모를 이용하면서 영구재고법에 의해 산출
- 3) 자본 증가율은 각각, 1970~2004년, 1970-1979년, 1980~1989년, 1990~2004년의 연평균 증가율임. 각각의 증가율은 로그차분(log-differenced)으로 계산

- 경제성장에 있어 요인별 기여도(율)를 기간별로 살펴보면, 순자본스톡 및 노동의 기여도는 1970년대 4.1%와 2.4%에서 1991~2005년에는 2.4%와 1.1%로 둔화
 - 반면에, 1991-2005년 기간동안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율)은 1970년대 0.5%(7.7%)에 비해서는 크게 증가한 1.9%(34.8%)로 증가하였으나, 1980년대(3.4%(40.8%))에 비해서는 크게 감소한 수준
 -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장에 있어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율)가 아직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80년대에 비해서도 낮은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표시

(2) 부문별 양극화의 해소

□ 양극화의 구조

- 최근의 양극화는 IT 등의 기술진보, 중국의 부상 등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개별 경제주체의 적응능력 격차로 발생
 - 글로벌화의 진전은 수출과 내수간, 또한 수출산업내 선도 기업과 한계기업간 양극화를 초래, 그리고 IT 등 기술진보는 전문인력과 단순인력간 수요격차를 확대
 -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IT제품 및 부품소재의 대중국 수출이 급증하는 반면, 중국의 수출증가로 전통적 산업에서 한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중국으로부터 생활관련제품(섬유 및 생활용품)의 수입이 급증하는 등 국내산업의 양극화가 가속
- 양극화는 “산업간·기업간 격차 ⇒ 소득·고용 격차 ⇒ 혁신기반(교육·인적 자원 투자기회) 격차 ⇒ (다시) 산업간·기업간 격차” 로 연결되는 순환구조 형성

□ 산업 · 기업간 양극화

- 산업 측면에서의 양극화는 1990년대 이후 제조업과 서비스산업간의 양극화가 지속
 -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의 생산성 열위가 확대: 1990년(127%) ⇒ 2005년(50%)
- 업종 측면에서의 양극화는 제조업내에서 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내에서도 선도업종과 전통업종간 양극화가 진행
 - 제조업내에서는 IT 등 중화학공업과 경공업간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고, 서비스업내에서는 생산자 서비스업과 전통적 서비스간 생산성 격차가 확대
 - * 도소매 · 음식숙박업 대비 운수 · 통신 · 금융업의 생산성: 1995년(3.5배) → 2000년(3.7배) → 2005년(4.4배)
 - * 경공업 대비 IT 생산성: 1995년(1.4배) → 2000년(2.2배) → 2004년(4.5배)
- 기업 측면에서의 양극화는 성장 · 침체 업종을 불문하고 기업간 양극화가 진행 : '고성장 업종'에서 현저하고 점차 경공업 · 생계형 서비스로 확산
 - 우량업체와 한계업체의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중간업체의 비중은 감소
 - * 이자보상배율(1998년→2003년): 0이하(17.0→22.5%), 0~3 (58.0→32.5%), 3이상(27.0→46.5%)

□ 소득·고용의 양극화

- 산업간·기업간 양극화는 첨단 산업과 전통산업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를 확대
 - 제조업내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은 1997년 70% 수준에서 2005년에는 58% 수준으로 하락
- 또한, 일자리의 양극화도 진행되어 비상용직이 급증하고, 자영업자도 계속 증가
 - 임시일용직은 외환위기 이후 전통적 서비스업 중심으로 증가(1996년 570만명에서 2005년에는 727만명으로 증가)하고, 상용직 대비 임금도 하락 추세
 - * 임금근로자 중 임시일용직 비중: 1996년(43.2%)→2005년(47.9%)
 - * 상용직 대비 임시일용직 임금: 1996년(51.2%)→2005년(47.4%)
 - 또한, 외환위기 이후 자영업자가 전업종에서 급격히 증가(1995년 557만명에서 2005년에는 617만명으로 증가) ⇒ 자영업자의 소득 증가율은 2000년 이후 급감하여 2004년 실질소득은 1999년의 82% 수준에 불과, 최근에는 임금근로 소득을 하회
- 이러한 임금·일자리의 양극화로 인해 중소기업근로자·임시일용·자영업주 중 빈곤층이 확대되고 특히 자영업주내에서 현저
 - 임금근로자의 절대 빈곤율: 1996년(2.5%)→2003년(5.1%)→2004년 3/4분기(4.9%)
 - 자영업주의 절대 빈곤율: 1996년(1.6%)→2003년(5.6%)→2004년 3/4분

기(6.2%)

□ 혁신기반 격차

- 산업·기업간 양극화로 인한 소득·고용의 양극화는 기업 및 개인의 혁신기반의 격차를 야기
- 먼저, 기업측면에서는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 확대⇒임금·근로조건 격차 현저⇒대기업으로 고급인력 집중”의 현상이 발생
 - 박사급 연구원의 상위 20개사 집중도는 2001년 38%에서 2004년에는 51%로 상승
 - R&D 투자에 있어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고, 또 기업규모를 불문하고 선도·여타업체간 격차가 확대
- 개인측면에서는 교육·인적자원 투자의 격차가 확대되어 빈곤의 대물림이 우려
 - 고·저소득층간 교육투자에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고(2003년 최상위 10%의 교육비 지출은 48만원, 최하위 10%의 지출은 7만원으로 그 격차는 6.9배), 특히 초·중등학교에서의 투자 격차는 대학진학 성과의 격차와 연결
 - 지식정보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계층간·세대간 격차도 발생

Ⅱ. 미래 한국산업의 발전비전과 정책과제

1. 한국 경제의 위상과 특징

- GDP 12위, 무역 13위, 미국 특허등록 5위
-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당해년 가격기준)은 약 7,875억 달러로 세계 12위 규모
- 1인당 GDP : 2005년 16,291 달러로 세계 29위를 기록함.
-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미국을 100으로 할 때 42.7% 수준인 것으로 추정됨.
- 교역규모는 2005년 약 5,457억 달러로 수출은 세계 12위, 수입은 세계 13위를 기록함.
 - 우리나라 수출(2005년)은 2,844억 달러로 세계 12위 규모
 - 수입은 2,612억 달러로 세계 13위 규모
- 기술경쟁력의 한 지표로 미국 등록 특허건수를 보면 2004년 4,428건으로 세계 5위권임.
- 제조업이 전산업 성장을 주도
-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을 보이면서, 전산업의 성장을 주도해옴.
- 산업의 급성장으로 2000년 불변가격 기준 부가가치가 1970년 66조에서 2005년 643조로 36년간 약 10배로 증가함.

<표 II-1> 한국 산업구조의 변화 추이(경상 부가가치 기준)

단위 : %

	1970	1980	1990	1995	2000	2005
농림어업	31.01	18.11	9.78	6.94	5.27	3.42
제조업	17.79	24.45	27.26	27.63	29.42	28.44
(중화학)	(40.6)	(58.1)	(71.0)	(76.6)	(79.3)	(84.80)
(경공업)	(59.4)	(41.9)	(29.0)	(23.4)	(20.7)	(15.20)
전기가스수도건설	6.47	10.16	13.47	13.63	10.92	11.55
서비스	44.73	47.28	49.49	51.80	54.39	56.32

주: ()는 제조업을 100으로 한 비중

- 서비스부문은 1990년대 초반까지는 전산업 평균 수준의 성장을 보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침체를 보이면서 최근에는 저성장 추세를 보임.

□ 최근에 제조업 비중 유지, 서비스업 비중 지속 증가

- 제조업 비중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임.

<표 II-2> 제조업 비중의 국제비교

단위 : %

		경상	실질
한국(2005)		28.4	32.4
미국	2002	13.9	17.8
	1970	24.3	22.7
일본	2002	20.3	21.5
	1980	28.8	23.9
독일	2002	20.8	21.8
	1978	29.1	28.7

주 1) 부가가치 기준

2) 실질 : 한국은 2000년 가격, 여타국은 1990년 가격 자국통화 기준

3) 주요국의 하단 연도는 PPP기준 2004년 한국의 1인당 GDP에 근사한 연도

- 제조업 비중은 1980년대 말 정점에 달한 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외환위기 이후 다시 높아지면서 최근까지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임.
- 현재 한국의 제조업 비중은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임.
- 무역의존도는 OECD 국가 중 7위(2005년 기준)
 - 우리나라 무역의존도는 69.3%로 OECD 국가 중 9위 수준이며 2002년 57.5%, 2003년 61.3%, 2004년 70.3%로 국가경제규모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
 - 미국은 21.2%, 일본은 24.4%를 기록함.
 - 수출의존도 역시 한국이 36.1%로서 일본의 13.1%, 미국의 7.3%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임.
- 성장주도 업종, 섬유 → 자동차 → 반도체 → 정보통신 순 변화
 - 1970년대~80년대 중반은 섬유, 80년대 중반~90년대 중반은 자동차, 90년대 중반 이후는 반도체·전자부품이 최대 성장기여 업종으로 역할을 함.
 - 성장주도업종의 평균 성장주도 기간(성장기여도 1위 지속 기간)은 약 10년 정도에 이름.
 - 2000년 이후에도 반도체가 성장기여율 1위를 유지한 한편으로, 영상음향기기가 2위를 차지하는 등 타 정보통신업종도 고성장 상위 5대 업종 중 1~3위를 차지할 정도로 역할이 증대함.
 - 특히 IT기반 디지털전자산업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등 핵심 주력기간산업으로 급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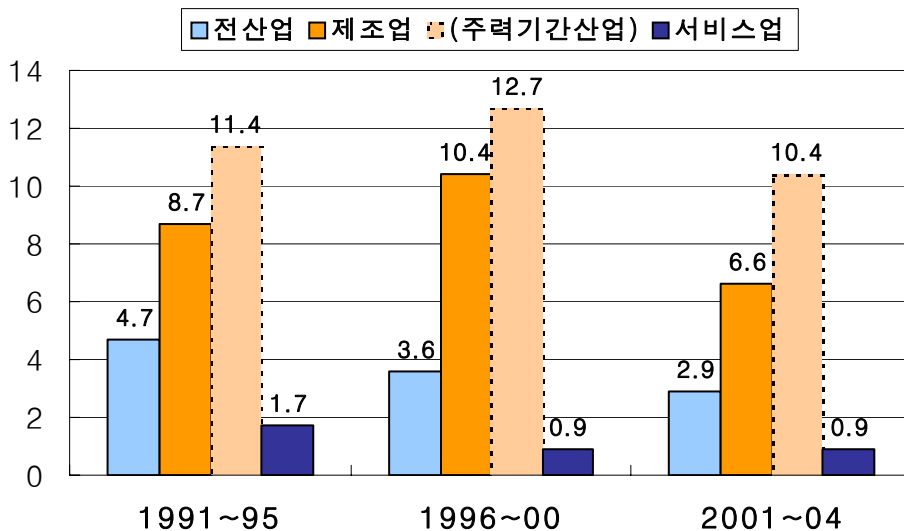
- 그러나, 주력기간산업은 세계적 과잉설비, 수입규제압력 등에 직면하고 있으며, 기술개발 및 신기술의 활용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 전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세 둔화

- 주력제조업 부문이 노동생산성 상승을 주도하는 가운데 전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세 둔화는 경공업과 서비스산업의 둔화에 기인함.
- 전산업 노동생산성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1991~95년 기간 동안 4.7%, 1996~2000년 기간 동안 3.6%, 2001~2004년 기간 동안 2.9%를 보이는 등 그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런 가운데 주력기간산업의 노동생산성이 연평균 10% 이상의 증가를 보임으로써 전체경제의 생산성 상승을 주도해옴.

<그림 II-1> 주요 산업별 노동생산성 증가율 추이

단위 : %



자료 : 한국은행(2005), 국민계정;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호

주 : 2000년 불변가격 기준 산업별 기초가격 부가가치를 취업자수로 나눈 것

2. 2020 한국산업의 미래상¹⁾

(1) 산업 부문

□ 제조업 규모, 2020년 세계 5위까지 진입 가능(고성장시)

○ 기준성장 시나리오에서 제조업은 2020년까지 연평균 4.9%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고성장 시나리오 하에서는 제조업은 연평균 5.6%씩 성장하며, 원화 절상시는 제조업 규모가 세계 5위까지 부상할 전망이다.

<표 II-3> 2005~2020년 제조업 성장률과 세계 순위 전망

	2005~2020 연평균 성장률(%)	2020년 세계 순위	
		환율 고정	원화 절상
기준성장	4.9	7 위	6 위
고성장	5.6	7 위	5 위
저성장	4.0	8 위	7 위

주: 제조업 부가가치는 2000년 불변원화 기준

□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동반 성장

○ 2020년까지 서비스업도 제조업과 동일한 수준인 4.9%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표 II-4>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성장 전망

단위 : %

	2001~2004	2005~2020
제조업	6.6	4.9
서비스	3.8	4.9
GDP	4.6	4.6

1) 산업연구원, 『한국산업의 발전비전 2020』, 2006

□ 제조업은 여전히 전체 경제의 생산성 상승을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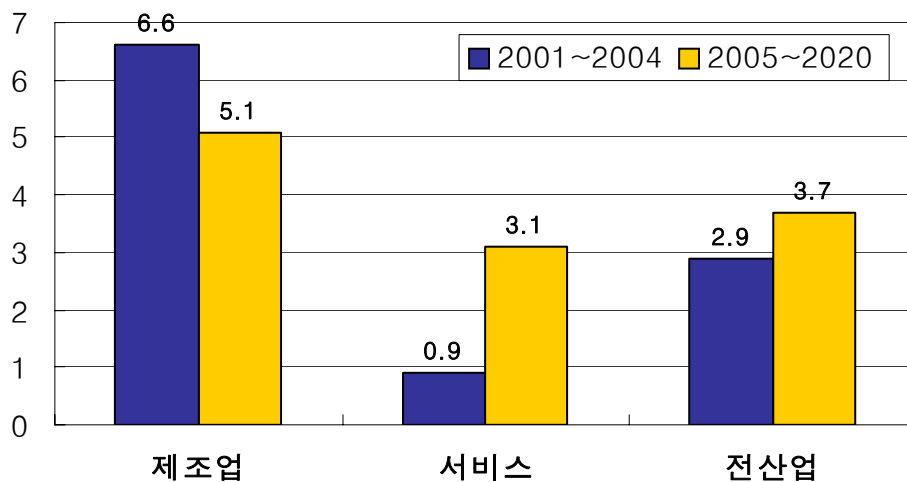
○ 2020년까지의 노동생산성 연평균 증가율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각각 5.1%와 3.1%를 보임으로써 전산업 생산성 연평균 증가율이 3.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제조업 내에서는 특히 첨단기술산업(노동생산성 상승률 7.9%)과 정보통신산업(6.0%)이 제조업 전체의 생산성 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보임.

○ 그 결과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2004년 미국의 약 40% 수준에서 2020년에는 미국의 64% 수준으로 향상될 것임.

<그림 II-2> 부문별 노동생산성 상승률 전망

단위 : %



□ 주력기간산업과 지식서비스 부문이 성장을 주도

○ 제조업 중에서 주력제조업은 산업내 고도화를 통해 2005 ~ 20년간 제조업 전체 성장의 약 75%를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서비스업중에서 지식서비스부문이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며 이 중에서도 특히 문화서비스와 사업관련서비스의 성장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표Ⅱ-5> 지식서비스산업 부문별 성장기여 전망(기준성장 시나리오)

단위 : %

	비중 변화		2005~20년 성장		
	2004	2020	평균성장률	성장기여도	성장기여율
금융 및 보험	14.2	19.8	7.1	1.6	31.6
사업관련서비스	9.0	12.9	7.2	1.1	21.5
통신방송	7.6	9.3	6.3	0.7	14.7
문화서비스	2.0	3.2	7.8	0.3	5.8
지식서비스 계	32.9	45.2	7.0	3.2	63.8
서비스 계	100.0	100.0	4.9	4.9	100.0

(2) 대외부문2)

- 주력기간산업의 수출비중 상승추세 지속

<표Ⅱ-6> 주요 산업별 수출 구성비 전망(기준성장시)

단위 : %

	2004	2010	2015	2020
자동차	7.6	8.3	8.3	8.3
조선	5.0	3.5	2.5	2.0
일반기계	4.4	5.7	6.1	6.3
섬유류	4.9	3.2	2.3	1.8
철강	2.8	2.3	1.9	1.6
석유화학	5.3	5.1	4.7	4.4
컴퓨터·사무기기	7.4	5.6	5.8	5.9
반도체·전자부품	20.0	20.4	20.7	20.8
영상음향기기	2.7	2.9	2.9	2.9
통신기기	10.2	15.5	18.8	20.7
주력산업계	70.3	72.4	74.0	74.7

주 : 1) 한국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2) 실질기준

2) Global Insight와 KIET 공동 연구, 대외부문 2020 비전

- 한국의 총수출에서 주력기간산업의 수출 비중은 2004년 70%에서 2020년 75%로 높아질 전망이다.
- 주력기간 산업 중 통신기기, 자동차, 일반기계 등의 수출비중은 상승하는 반면, 조선, 섬유류, 철강, 석유화학 등의 수출 비중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3) 한국 주요산업의 2020년 세계적 위상

□ 제조업의 세계수출시장 점유율, 7위로 상승

- 제조업의 세계수출시장 점유율과 위상은 각각 2004년 3.5%와 8위에서 2020년 4%와 7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 고성장시는 점유율 4.6%로 영국, 이탈리아를 추월하고 6위 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음.

<표 II-7> 제조업의 세계수출시장에서의 위상(기준성장시)

단위 : %

	한국	중국	인도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2004	3.5 (8위)	7.8 (3위)	1.0 (9위)	11.7 (1위)	7.5 (4위)	10.5 (2위)	5.2 (5위)	4.4 (6위)	4.2 (7위)
2020	4.0 (7위)	14.5 (1위)	1.6 (9위)	12.7 (2위)	5.6 (4위)	8.5 (3위)	4.7 (5위)	4.2 (6위)	3.3 (8위)

자료 : 한국의 수출전망은 KIET, 세계 수출전망은 KIET·Global Insight(2005)

주 : 경상가격 기준

□ 주력기간산업의 수출, 고성장시 일본을 추월하여 4위 가능

- 한국 주력기간산업의 세계수출시장 점유율과 세계적 위상은 각각 2004년 5%와 5위에서 2020년 5.8%와 5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고성장시는 점유율 6.7% 수준으로 일본(6.5%)을 추월하고 4위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음.

<표 II-8> 주력기간산업의 세계시장에서의 위상(기준성장시)

단위 : %

	한국	중국	인도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2004	5.0 (5위)	8.0 (4위)	0.7 (9위)	11.8 (1위)	11.3 (2위)	11.3 (2위)	4.8 (6위)	3.9 (8위)	4.2 (7위)
2020	5.8 (5위)	16.8 (1위)	1.2 (9위)	12.8 (2위)	6.5 (4위)	8.9 (3위)	4.1 (6위)	3.6 (7위)	3.2 (8위)

자료 : 한국 수출전망은 KIET, 세계 수출전망은 KIET · Global Insight(2005)

주 : 경상가격 기준

□ 대부분의 주력기간산업, 세계수출시장 점유율 높아져

- 조선은 세계 1위의 위상을 지속하고, 전자 및 반도체도 3위의 위상을 변함 없이 유지할 전망이다.
- 자동차 및 부분품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도 현재 2.8%에서 2020년 3.5%로 크게 높아지고 일반기계산업의 점유율도 2배 정도로 상승할 전망이다.

<표 II-9> 주요 산업별 세계수출시장 점유율 전망

단위 %

	2004	2020		
		고성장	기준성장	저성장
자동차	2.8(7위)	4.0(6위)	3.5(7위)	2.9(7위)
조선	30.5(1위)	30.0(1위)	26.0(1위)	21.4(1위)
일반기계	2.0(8위)	4.3(8위)	3.7(8위)	3.1(8위)
섬유류	3.5(6위)	2.3(7위)	2.0(8위)	1.7(8위)
철강	4.4(6위)	8.3(3위)	7.8(3위)	6.4(4위)
석유화학	3.6(7위)	4.4(5위)	3.8(7위)	3.1(8위)
전자·반도체	8.3(4위)	10.1(3위)	8.7(3위)	7.2(3위)

주 : 1) 순위는 한국, 중국, 인도,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9개국 중의 순위

2) 달러 기준의 비중이며, 생산대수 기준으로는 자동차가 2004에 6위

3. 향후 10년간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 산업군

- 미래 우리나라 산업의 신성장동력산업 후보군으로 첫째, 우리의 향후 주력으로 예상되는 신기술산업과 둘째, 시장의 확대가 예상되는 부품소재산업, 셋째는 일자리의 확대가 예상되는 지식서비스산업군을 들 수 있음.

(1) 신기술산업군

□ 신산업 창출 및 기존산업 고부가가치화의 원천

- 신기술산업군은 각 분야가 단독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성을 확대시키는 동시에 기존 주력산업과의 융합화를 통하여 기존 주력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임.
- 특히,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인 R&D투자 와 산업발전 기반조성이 이루어지면 현재 선진국대비 50~6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첨단산업의 기술경쟁력이 80~90% 수준까지 제고될 것으로 전망됨.

(2) 부품소재산업군

□ BRICS의 개발수요 및 국제분업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회의 원천

- 부품소재산업군은 중국과 인도의 세계 물품공급기지화 진전에 따른 수요증가와 산업간 분업에서 산업내 분업으로의 전환되는 국제분업구조의 변화추세를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것임.
- 기술적인 면에서 IT, BT, NT 등의 발전으로 신소재개발 및 부품의 경량화·신기능화가 유발되고 부품소재의 개발이 이들의 발전을 촉진하는 등 첨단산업과 부품소재산업간의 상호 융합과 활용이 고도

화되는 형태로 발전될 것이며, 이를 통해 '부품소재의 글로벌 공급
기지화'가 조기에 정착될 것임.

(3) 지식서비스산업군

□ 고임금의 지식집약적 일자리 창출의 원천

- 향후 지식서비스산업은 고부가가치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고임금의 지식집약적 일자리 창출 역할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지식서비스산업의 발전은 제조업의 서비스화에 부응한 서비스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의미하며, 자동차, 조선, 통신기기 등 기존의 주력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사업지원 서비스업, 문화오락관련 서비스업, 정보통신 서비스업 등은 기존의 주력산업을 지원하거나 자체 수출을 통한 시장창출 가능성이 매우 큰 분야로서, 경쟁력강화를 통해 국민경제의 성장과 고용을 견인하는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Ⅲ. 전라북도 발전비전과 전략

1. 전라북도 지역의 경제현황과 문제점

(1) 전라북도 지역의 경제현황

□ 경제규모 평가

- 전북의 지역내 총생산은 2004년 현재 21조 9,957억으로 전국대비 비중이 3.1%에 불과함.
 - 지역내 총생산 규모 측면에서 전북은 전국 16개 시도 중 12위를 차지하고 있음.
- 전북의 전국대비 지역내 총생산 비중은 1994년 3.5%에 비해 오히려 하락한 것임.
 - 전북의 지역내 총생산 비중은 1990년대 초 미약하나마 증가하면서 1997년 3.6%에까지 이르렀으나, 외환위기의 여파로 다시 크게 줄어 2004년 3.1%로 축소되었음.
- 전북의 경제규모는 인구규모에 대비한 상대적 점유도 측면에서도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전북의 지역내 총생산의 인구대비 상대적 점유도 지수는 2004년의 경우 80.1에 불과해 경제활동이 인구규모에 비해 매우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전북의 동 지수 수준은 9개 도 가운데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제일 낮은 수준임.

<표Ⅲ-1> 시·도별 지역내 총생산 현황(2000년 불변가격 기준)

단위 : 10억원, %

구분	지역내 총생산				인구대비 상대적 점유도	
	1994년	비중	2004년	비중	1994년	2004년
전국	450,849	100	702,806	100	100	100
서울특별시	120,246	26.7	156,681	22.3	110.3	106.3
부산광역시	29,003	6.4	40,389	5.7	79.2	76.5
대구광역시	18,582	4.1	22,298	3.2	81.3	61.3
인천광역시	21,819	4.8	32,132	4.6	107.2	85.9
광주광역시	10,615	2.4	14,869	2.1	83.8	73.8
대전광역시	11,374	2.5	16,374	2.3	88.2	78.8
울산광역시	-	-	35,575	5.1	-	228.2
경기도	77,820	17.3	146,755	20.9	108.1	96.4
강원도	13,639	3.0	18,469	2.6	90.6	84.3
충청북도	13,810	3.1	23,552	3.4	99.5	109.5
충청남도	21,172	4.7	38,139	5.4	106.4	134.9
전라북도	15,597	3.5	21,996	3.1	78.6	80.1
전라남도	22,211	4.9	30,543	4.3	102.0	106.9
경상북도	28,243	6.3	51,198	7.3	96.4	131.4
경상남도	42,332	9.4	47,608	6.8	107.2	104.9
제주도	4,386	1.0	6,228	0.9	89.6	78.0

자료 :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각년도.

주 : 인구대비 상대적 점유도는 (지역별 총생산/전국 총생산)/(지역인구/전국 인구)×100로서 100이상이면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규모가 크다는 것을 나타냄.

- 전북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2004년 58.5%로 전국의 62.1%에 비해 3.6% 포인트 이상 격차가 나타나고 있음.

- 전북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광주와 부산을 제외하고 제일 낮은 수치임.

□ 산업구조 현황과 변화 추이

- 전북의 경제규모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산업구조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낙후되었기 때문임.

○ 전북의 산업구조는 농림어업 부문의 비중이 우리나라의 여타 지역에 비해 크게 높은 반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전북의 농림어업부문의 비중은 2004년 12.9%로 우리나라 전체의 비중 3.9%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

- 반면 제조업의 비중은 2004년 27.0%로 전국의 동 산업 비중 30.9%에 비해 낮은 수준임. 또한 서비스업 역시 동년에 60.1% 수준으로 전국 평균 65.3%에 비해 낮은 수준임.

<표Ⅲ-2> 시·도별 산업구조(지역내총생산)

단위 : %

	농림어업 및 광업		제조업		생산자 서비스		일반서비스 및 기타	
	1994년	2004년	1994년	2004년	1994년	2004년	1994년	2004년
전국	5.6	3.9	25.9	30.9	20.5	20.2	48.0	45.1
서울특별시	0.5	0.2	8.6	6.7	38.4	40.7	52.5	52.3
부산광역시	2.1	1.3	22.0	18.5	20.6	20.8	55.3	59.3
대구광역시	0.4	0.6	29.3	24.2	20.6	22.7	49.7	52.5
인천광역시	1.0	1.0	38.9	32.4	16.1	15.5	44.0	51.0
광주광역시	2.3	1.6	23.3	24.6	18.7	20.2	55.7	53.6
대전광역시	0.6	0.4	21.7	22.0	22.7	25.1	55.1	52.5
울산광역시	-	0.6	-	69.1	-	7.0	-	23.2
경기도	4.6	2.2	37.6	44.7	14.2	15.5	43.6	37.6
강원도	10.9	8.5	13.5	11.9	10.7	13.5	64.9	66.1
충청북도	10.5	6.7	32.8	46.0	11.5	11.2	45.2	36.1
충청남도	15.2	9.6	33.2	42.8	8.8	8.8	42.8	38.7
전라북도	15.8	12.9	23.9	27.0	12.5	14.0	47.9	46.1
전라남도	20.2	15.5	21.1	25.0	10.5	10.9	48.2	48.6
경상북도	11.5	7.4	37.6	48.8	11.1	8.8	39.7	35.1
경상남도	6.6	6.7	46.3	41.8	9.5	11.5	37.6	40.0
제주도	22.8	17.8	3.6	3.2	16.6	17.4	57.0	61.6

자료 :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각년도.

주 : 2000년 불변가격 기준임.

-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전북의 산업구조는 제조업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 전북 산업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은 2004년 27.0%로서 1994년의 23.9%에 비해 3.1% 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동 기간 동안 농림어업은 15.8%에서 12.9%로 2.9% 포인트 감소하였음.
 - 다만 동 기간 동안 우리나라 전체의 제조업 비중은 5.0% 포인트 증가하여 전북의 제조업 성장이 전국 평균에 비해 느린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줌.
- 서비스산업 역시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다만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생산자서비스의 경우 도단위 지역과 비교하여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음.
 - 전북 산업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60.1%로, 1994년 60.4%와 비슷한 수준임. 이중 소비자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6.1%이며 생산자서비스산업의 비중은 14.0%임.
 - 생산자서비스산업의 비중은 전국 평균 20.2%에 비해서는 낮으나, 도단위 지역과 비교하면 제주도와 경기도 다음으로 높은 수준임.
- 산업 특화도 측면에서 보아도 전북은 농림어업부문에 특화되어 있으며, 농림어업부문의 특화도가 크게 높아진 반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다른 부문의 특화도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산업 특화도 지수가 1 이상인 산업은 농림어업(3.3), 건설업(1.1)으로 나타남. 반면, 생산자서비스업(0.7), 전기가스수도업(0.7), 제조업(0.9)의 특화도는 1 미만으로 특화열위산업으로 나타남.

<표Ⅲ-3>

전라북도 산업별 특화도

단위 : 10억원

	1994년			2004년		
	전국	전북	특화도	전국	전북	특화도
전산업	407,472	14,114	-	622,019	19,670	-
농림어업·광업	22,833	2,227	2.8	24,305	2,532	3.3
제조업	105,678	3,367	0.9	191,984	5,320	0.9
생산자서비스	83,570	1,766	0.6	125,458	2,750	0.7
소비자서비스	141,999	4,926	1.0	210,024	6,912	1.0
전기가스수도업	8,602	140	0.5	17,651	404	0.7
건설업	44,790	1,689	1.1	52,598	1,753	1.1

자료 :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각년도.

주 : 1) 2000년 불변가격 기준임.

2) 산업의 특화도 지수 = (특정지역의 i산업 구성비중/전국 i산업 구성비중)

- 농림어업부문의 2004년 특화도 지수는 1994년 2.8에 비해서 더욱 높아진 3.3을 기록하고 있음.

□ 경제성장 요인분석

- 변이할당분석(shift-share analysis)을 통해 전북 경제의 성장요인을 분석한 결과, 전북의 경제성장은 지역의 산업구조, 또는 지역의 경쟁력에 의해서보다는 우리나라 전체의 성장효과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음.

- 1994~2004년간 전북 지역내총생산 중 산업부문은 총 5조 5,560억원이 증가하였음.

- 이 중 1조 9,857억원이 소비자서비스부문에서 증가하였으며, 제조업 부문에서는 1조 9,530억원이 증가하였음.

- 그러나 전북에서 특화도가 가장 높은 농림어업부문의 지역내총생산 증가분은 3,055억원에 불과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표Ⅲ-4> 전라북도 산업의 지역내총생산 성장효과(1994-2004년)

단위 : 백만원

구분	총변화효과	전국산업 성장효과	산업구조 효과	지역할당 효과	순효과
농림어업,광업	305,471	1,172,567	-1,029,004	161,908	-867,096
제조업	1,952,995	1,772,572	976,816	-796,393	180,423
생산자서비스	984,207	929,714	-44,679	99,172	54,493
소비자서비스	1,985,749	2,593,629	-233,854	-374,026	-607,880
전기가스수도업	263,474	73,945	73,777	115,752	189,529
건설업	64,111	889,121	-594,770	-230,240	-825,010
계	5,556,007	7,431,549	-851,714	-1,023,828	-1,875,542

자료 :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각년도.

- 전북의 전국성장효과를 제외한 산업구조효과와 지역할당효과는 모두 음의 값으로 나타남으로써, 지역 산업구조 측면과 지역 경쟁력 측면의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음.
- 산업별로 전북이 여타 지역에 비해 비교 우위가 있는 산업은 전기가스수도업, 제조업, 생산자서비스업이며, 반면에 농림어업, 건설업, 소비자서비스업은 비교열위인 것으로 나타남.
 - 전기가스수도업은 산업구조효과와 지역할당효과가 모두 양의 값을 보이고 있는 유일한 사업부문임.
 - 제조업부문은 전북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다만, 산업구조 측면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역할당 효과는 음을 기록함으로써 전북 제조업의 지역경쟁력 측면의 취약성을 노정하고 있음.

□ 제조업 현황과 변화 추이

- 전북 제조업은 1994~2004년간 연평균 5.8%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그러나 이는 전국의 연평균 8.2% 수준에 비해 다소 부진한 실적임.

○ 전북 제조업의 상대적 부진은 각종 관련 지표에서 전북의 점유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데서 확인할 수 있음.

- 전북 제조업의 전국대비 비중은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부가가치 등의 지표에서 모두 3%에도 미치지 못함.

- 이를 1994년과 비교하면 전북의 점유율은 생산액에서는 증가하였지만, 사업체수, 부가가치에서는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표Ⅲ-5> 전라북도 제조업의 부문별 전국대비 비중

단위 : %

	전북/전국		인구대비 상대적 비중	
	1994년	2004년	1994년	2004년
사업체수	2.3	2.1	53.1	53.5
종사자수	2.6	2.6	59.6	66.3
생산액	2.3	2.7	52.4	68.5
부가가치	2.5	2.4	57.8	61.6
주민등록인구	4.4	3.9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통계청, KOSIS, 주민등록인구통계, 각년도.

주 : 인구대비 상대적 점유도는 (전북/전국)/(전북인구/전국인구)×100로서 100이상이면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다는 것을 나타냄.

○ 이를 인구규모와 대비한 상대적 비중으로 살펴보면 관련 지표에서 모두 50~6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전북의 제조업 발달이 매우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음.

- 생산액, 종사자수, 부가가치의 인구대비 상대적 비중은 60% 이상이지만, 사업체수의 경우는 53.5%에 불과함.

○ 다만, 인구대비 상대적 비중을 1994년과 비교하면, 각 지표의 절대적 비중과는 달리 사업체 수를 제외한 모든 지표에서 상당한 수준 높아진 것임.

- 다른 지표에 비해 사업체수의 비중이 낮은 것은 단위 기업당 생산액 규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함. 전북 제조업 생산은 중규모 기업의 생산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

- 종사자 규모별 출하액의 비중을 보면 전북은 종사자수 50인 이상 200인 미만의 중규모 기업에서는 전국에 비해 높은 반면, 50인 이하 소기업과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비중이 낮음.

○ 또한 종사자수 비중에 비해 부가가치 비중이 낮은 것은 전북 제조업이 여타 지역에 비해 저부가가치형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는 특성을 보여주는 것임.

<표Ⅲ-6> 전라북도 제조업의 종사자 규모별 비중(2004)

단위 : %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출하액		부가가치	
	전국	전북	전국	전북	전국	전북	전국	전북
제조업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5 ~ 9	50.6	46.4	12.9	9.6	4.7	5.0	5.1	4.6
10 ~ 19	25.3	24.2	13.7	10.8	6.6	5.6	6.9	5.9
20 ~ 49	16.3	18.5	19.9	18.6	11.5	10.6	11.6	11.5
50 ~ 99	4.6	5.8	12.8	13.0	9.7	11.0	9.7	11.0
100 ~ 199	2.0	3.2	11.0	14.8	10.3	14.9	10.3	16.7
200 ~ 299	0.5	0.8	5.3	6.9	6.0	12.2	6.2	20.5
300 ~ 499	0.3	0.5	5.0	5.1	6.9	5.9	7.0	6.7
500명 이상	0.3	0.5	19.2	21.1	44.1	34.9	43.2	23.1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 제조업 구조

- 전북 제조업은 음식료품, 화학제품, 자동차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구조가 형성되어 있음.
 - 2004년 현재 부가가치 기준으로 음식료품이 23.4%, 화학제품이 17.4%, 자동차가 20.2%로서 3개 업종이 전체의 61.0%를 점하고 있음.
 - 이중 화학제품의 경우 식품 및 동물사료 첨가물 등이 중심이란 점에서 전북의 산업은 사실상 음식료품 및 연관 업종 그리고 자동차 등 2개 업종 중심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종사자 수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양한 업종으로 분산되어 있는데, 이는 음식료품의 영세성과 화학제품의 대기업 중심구조에 기인하는 것임.

<표 III-7> 전라북도 제조업의 업종별 점유율 변화

단위 : %

산업중분류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부가가치		
	비중		연평균증가율	비중		연평균증가율	비중		연평균증가율	비중		연평균증가율
	1994	2004		1994	2004		1994	2004		1994	2004	
제조업	100.0	100.0	1.1	100.0	100.0	-0.6	100.0	100.0	20.8	100.0	100.0	12.0
음식료품	14.4	20.3	5.6	14.2	17.9	1.8	21.8	20.4	18.7	20.9	23.4	14.6
담배	-	-	-	-	-	-	-	-	-	-	-	-
섬유제품	7.3	5.0	-2.5	9.6	5.7	-4.4	6.7	3.2	4.6	7.8	4.2	1.8
의복, 모피	16.9	8.2	-4.6	19.1	5.4	-7.3	7.0	0.7	-7.0	7.8	1.0	-7.2
가죽, 가방	0.2	0.1	-4.0	0.9	0.1	-8.8	0.2	0.0	-4.4	0.2	0.0	-5.7
목재, 나무	8.8	5.6	-3.0	3.7	2.4	-3.8	2.5	2.0	14.7	2.1	1.9	9.3
펄프, 종이	4.0	3.3	-1.0	7.3	4.6	-4.1	12.9	5.4	2.9	12.1	5.0	-1.0
출판, 인쇄	2.2	2.7	4.1	1.4	1.5	0.4	0.4	0.3	18.8	0.5	0.5	12.8
석유정제	-	-	-	-	-	-	-	-	-	-	-	-
화학제품	3.6	5.6	7.5	6.8	8.5	1.8	15.1	16.4	23.3	13.9	17.4	17.4
고무	3.8	5.6	6.3	2.1	3.9	7.5	1.5	2.6	43.1	1.4	2.6	30.2
비금속	16.7	12.2	-1.9	10.4	7.7	-3.0	10.2	5.6	6.9	11.8	8.0	4.9

1차금속	0.8	1.5	10.0	4.0	3.4	-1.9	3.2	6.3	50.4	0.4	4.8	266.8
조립금속	5.0	7.3	6.2	3.3	3.3	-0.7	1.6	1.4	16.3	1.7	2.0	14.9
기타기계	3.7	5.7	7.0	3.0	4.3	3.3	2.1	2.4	24.8	2.3	2.9	17.7
사무기계	0.2	0.2	0.0	0.4	0.1	-8.4	1.0	0.0	-9.1	0.8	0.1	-8.5
전기기계	1.9	2.5	4.6	3.1	2.1	-3.7	2.7	1.1	2.9	2.2	1.2	1.6
통신장비	1.4	1.2	0.0	4.6	5.3	0.7	2.5	3.0	26.6	2.3	3.1	18.7
의료, 정밀	0.6	0.8	5.0	0.9	0.4	-6.0	0.6	0.1	-5.3	0.6	0.1	-5.4
자동차	0.6	6.2	103.1	0.9	20.2	201.5	0.7	26.8	1094.0	0.6	20.2	685.4
기타운송	0.5	0.3	-3.6	0.2	0.2	-4.0	0.1	0.1	34.1	0.1	0.1	11.6
가구	7.1	4.8	-2.6	3.1	2.6	-2.1	1.5	1.5	20.2	1.4	1.4	12.0
재생재료	-	0.6	-	-	0.3	-	-	0.1	-	-	0.1	-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2) 전라북도 경제의 문제점

□ 산업활동의 부진

- 지역경제 성장률이 전국 평균 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전국에서의 GRDP 비중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실정임.

- GRDP 기준으로 전북의 비중이 1994년 3.5%에서 2004년에는 3.1%로 하락

- 이에 따라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인구의 외부 유출이 심하며 상대적으로 중졸이하 학력의 취업비중이 높아 지식기반산업의 기업유치가 용이하지 않은 실정임.

□ 핵심 산업분야의 연구기관과 고급 인적자원이 부족

- 대학을 중심으로 이공계, 의약학, 농수해양 분야의 전반적인 연구인력은 상대적으로 풍부하나 자동차, 기계, 생물 등 전북의 핵심 전략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전문 연구인력과 연구기관은 부족한 실정

○ 이러한 전문인력의 부족은 기업의 지역내 창업과 외부기업 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지역산업 발전에 어려움을 야기

□ 지역 혁신역량 강화에 필요한 재정적 자원 부족

○ 전북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절대규모 역시 미미한 수준이어서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자체적인 투자가 어려운 실정

○ 특히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에 필수적인 연구개발 투자는 극히 미미한 실정

○ 부족한 재원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이 강력하게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지역혁신체제의 형성 미흡

○ 산업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내 혁신자원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지식의 창출과 확산을 강화하는 것이나 이러한 관점에서 전북의 산업별 혁신체제는 아직 충분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

○ 특히 지역내 다양한 혁신기관들은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보다는 개별적 활동에 치중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 중심의 수요자 지향적 연구가 미흡

□ 산업집적의 미흡

○ 지역산업의 부진은 기본적으로 대기업과 영세기업의 이중구조로 인하여 산업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임.

○ 예를 들어 전북의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이 완성차 중심의 구조에

서 다양한 부품산업의 집적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전북경제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기업의 집적을 유발할 수 있는 임계점의 도달이 전북 산업 발전의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외부 의존적 발전전략에 치중

- 중앙정부 의존적 발전전략이 아니라 내부 혁신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내발적 성장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실효성있게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
- 특히 낙후된 전북으로서는 기업의 유치를 통한 성장력 확대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지역 내 잠재되어 있는 혁신성을 적극 활용하여 내생적 성장을 추진하는 전략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중국의 위협 상존

- 중국의 중북부 연안지역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국내기업의 중국 투자진출이 더욱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유치 측면에서 첨예한 경쟁이 예상된다.
- 환황해경제권 내에서 전북이 지속가능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국 중북부 연안지역에 대응할 수 있는 규모의 산업클러스터 형성이 시급함.

2. 전라북도 경제의 발전여건 분석

(1) 경쟁우위 요소

□ 장점

- 대규모 국가사업(서해안고속도로, 군장신항만, 군장국가산업단지, 새만금 사업, 군산-장항 철도연결, 고속철도 등)의 실현으로 양호한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 전북지역은 대형 국책사업이 유사 이래 최대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제반 인프라나 산업발전여건이 충만한 상태임.
 - 서해안고속도로 및 전주-군산산업단지간 고속화도로 완공으로 수도권권과 전북권의 물류비용 및 시간 크게 단축됨.
- 전북은 군산자유무역지역 조성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집적지 및 동북아의 새로운 생산, 물류거점으로 부각되기 시작하고 있음.
 - 군산자유무역지역은 생산 및 물류가 동시에 가능한 복합자유무역지역으로서 군장국가산업단지내 38만평(예정지 포함 90만평)을 조성하였음.
 -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홍보와 입주상담이 활발히 진행 중
- 전북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장 근거리에 입지하여 기업의 대중국 진출 생산거점 및 교역관문으로 부상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함.
 - 군산항은 청도와 연태 등 중국도시와의 거리가 가장 근접
- 특히 군산지역을 중심으로 900만평에 가까운 군산국가공단, 군장국

가공단 등 광활한 양질의 산업용지와 금강유역의 풍부한 공업용수의 공급이 가능하며, 7개의 4년제 대학과 10여개의 2년제 대학, 직업훈련원 등에서 양질의 풍부한 인력공급이 가능함.

- 선유도를 중심으로 한 고군산열도, 금강 철새도래지, 변산반도, 내장산, 덕유산, 무주구천동으로 이어지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구비함.

- 세계최대의 길이(33km)를 자랑하는 새만금 방조제가 연결됨으로써 대천에서 서천-군산-새만금(고군산열도)-변산으로 이어지는 서해안 관광벨트가 완성되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 기회요인

- 국토종합계획상 환황해축(광주-군산/전주-인천-신의주)과 남부내륙축(군산/전주-대구/포항)의 교차지역으로서 국가적 차원의 개발거점으로 부상할 가능성 전망이다.

- 제4차 국토계획에 의거하여 환황해축과 남부내륙축이 지역 내에서 교차토록 되어 있어 국가적 차원의 개발수요 증대가 예상

- 향후 수도권 개발잠재력 약화와 서해안고속도로, 호남고속철도 건설 등에 따른 지역개발 잠재력 보유

- 환황해 경제권의 부상과 함께 대중국 교역활성화로 전북권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환황해 경제권의 부상과 우리나라의 대중국교역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

- 전북지역은 중국과의 접근성이 양호한 입지적 이점을 지니고 있어 서해안의 대중국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이 예상

- 산업의 전문화와 집적에 따라 경쟁우위의 변동이 이루어지고, 정보화와 지방자치제가 정착됨에 따라 기존 산업낙후지역에 새로운 산업발전 기회가 도래함.
-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중앙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전환도 전북지역 산업발전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2) 제약 요소

□ 약점

- 전국 각 도 단위에서 최하위권의 소득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전북의 지역내총생산은 전국의 약 3.1%에 불과하며, 1인당 소득은 전국 평균의 약 80% 수준에 머물러 있음.
- 1차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취약한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전북지역은 1차산업이 12.9%로 전국 평균(3.9%)에 비해 3배 정도이며, 제조업은 27.0% 수준으로서 전국 평균의 30.9%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지역의 중심거점이 취약하며 지역간 개발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산업 및 도시개발이 대부분 군산~익산~전주 축에 분포되어 있어 개발효과의 지역내 공간적 확산효과가 미흡
 - 특히 지역의 중추기능 수행 등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지역중심성이 취약
- 지역산업을 선도할 IT산업 등 고부가가치 기술집약산업 부재로 지

역경쟁력이 취약하며,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필요한 기술개발체계(연구개발시설 등), 기업지원체계(기업지원서비스 등) 등이 취약함.

□ 위협요인

- 중국 중·북부 연안을 중심으로 한 공단 및 자유무역지역의 개발로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전북지역의 입지 경쟁력이 약화할 우려가 있음.
 - 외국인기업 유치에 위한 입주환경 개선이나 유치노력이 있지 않으면, 전북지역의 대중국 수출전진기지, 물류기지로서의 역할도 불확실할 전망
- 소비시장의 세분화와 극심한 기술변화에 따른 산업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고, 새로운 산업발전 패러다임에 따른 지역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지역혁신체제의 구축 등 지역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전략이 없을 경우 지역산업의 경쟁력이 급속히 약화할 우려
 - 또한 산업화 과정의 소외지역에서 벗어나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는 새로운 국가거점지역, 서해안의 대중국진출 생산거점으로서의 육성정책도 불확실해질 우려
 - 전북지역 산업낙후의 원인은 산업발전을 이끌어갈 선도산업으로서의 첨단산업 또는 전략산업의 부재로 낙후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수립 시급

<표Ⅲ-8>

전북지역의 SWOT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국가사업(서해안고속도로, 군장신항만, 군장국가산업단지, 새만금사업, 고속철도, 군산-장항 철도연결 등)의 실현으로 최상의 발전잠재력 보유 - 군산 자유무역지역 조성으로 외국인기업 유치 집적지 및 동북아의 새로운 생산, 물류거점으로 부각 -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장 근거리에 입지하여 기업의 대중국 진출 생산거점으로 부상 - 7개의 4년제 대학과 10여개의 2년제 대학, 직업훈련원 등에서 양질의 풍부한 인력공급 가능 - 군산국가공단, 군장국가공단 등 광활한 양질의 산업용지와 금강유역의 풍부한 공업용수 공급가능 - 선유도를 중심으로 한 고군산열도, 금강철새도래지, 변산반도, 내장산, 덕유산, 무주구천동으로 이어지는 천혜의 자연환경 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각 도 단위에서 최하위권의 소득 보유 - 1차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취약한 산업구조 - 지역의 중심성 취약 및 지역간 개발격차 심화 - 지역산업을 선도할 고부가가치 기술집약산업 부재로 지역경쟁력 취약 -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필요한 기술개발체제(연구개발시설 등), 기업지원체제(기업지원서비스 등) 취약 - 고급 기술인력 공급체계 미흡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종합계획상 환황해축(광주-군산/전주-인천-신의주)과 남부내륙축(군산/전주-대구/포항)의 교차지역으로서 국가적 차원의 개발거점으로 부상 예상 - 환황해경제권의 부상과 함께 대중국교역 활성화로 전북권의 중요성 증대 - 기존 산업취약지역의 새로운 산업발전 기회 도래(산업의 전문화와 집적에 의한 경쟁우위의 확보 용이) - 정보화와 지방자치제의 정착으로 산업발전의 기회 요인 증대 - 중앙정부의 산업정책이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중북부 연안을 중심으로 한 공단 및 자유무역지역의 개발로 전북지역의 입지적 경쟁력 약화 우려 - 소비시장 세분화와 극심한 기술변화에 따른 산업경제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 새로운 산업발전 패러다임에 따른 지역간 경쟁심화 - 지역혁신체제 등 지역산업의 체계적 육성전략 구축이 없을 경우 지역산업 경쟁력의 급속한 저하 발생

(3) 발전잠재력 종합평가

- 전북의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발전 잠재력은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국제적 분업 측면에서 전북지역은 환황해 경제권이 가시화되는 시대적 배경을 고려할 때 앞으로 다양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
 - 전북지역은 한반도 중허리에 위치하면서 서해안 주요 항만과의 거리가 가장 가깝고, 중국과 시베리아로 연결되는 TCR의 시발항 역할이 가능하며, 동북아물동량의 급증에 따른 동북아 물류중심, 대중국 전진기지로서의 풍부한 잠재력 보유
 - 특히, 군산지역은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형 교통망의 중심역할을 수행
 - 뿐만 아니라 청도·연태 등 산동반도와 상해를 잇는 해상교통망에서 유리한 입지를 갖추으로써 환황해권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의 수출 및 물류전진기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 국내 성장거점으로서의 잠재력이 풍부함.
 - 전북지역은 중부권에서 가장 근접한 항만으로서 각 지역간의 도로 및 철도망이 잘 구비되어 있고, 부산, 광양항과의 피더서비스 항만으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서해안 중허리의 거점으로서의 잠재력 보유
 - 서해안 시대의 중심 항만을 군산이라 할 때 그 배후지를 전북권으로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대전권을 포함하여 설계 가능
 - 특히 신행정복합도시 건설을 계기로 중부권의 산업발전에 새로운

계기가 형성된다면 군산항은 중부권 클러스터의 관문 역할을 기대

○ 산업용지 공급여건 및 산업기반시설을 최고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 인접해 있는 군장국가산업단지, 군산국가산업단지, 군산지방산업단지 및 새만금 지구는 우리나라 최고의 산업용지를 자랑하며, 산업용지 공급가격도 매우 저렴
- 산업기반시설 측면에서는 서해안고속도로, 군장간 철도연결, 군장신항만 등 제반 교통인프라와 공업용수, 전력, 주택 등 완벽한 인프라 확보
- 따라서 기업유치를 위한 제반 여건이 양호하며 군산자유무역지역의 활용에 따른 외국인 기업유치 잠재력 풍부
- 다만 정보통신 인프라가 다소 취약하고 IT산업 등 고부가가치 기술집약 산업의 부재로 지역경쟁력이 취약하고,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체계가 취약
- 또한, 정보자원에서 전북지역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자원을 보유
- 그러나 정부의 지역간 정보격차(digital divide)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 등이 마련되어 있고, 전국 초고속망 구축사업 등이 완성단계에 있어 정보자원 부족의 문제는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전망

○ 산업집적면에서 산업구조는 1차산업 위주로 형성되어 취약한 구조임.

- 정밀화학, 첨단운송장비 등 지식기반산업은 발전하였으나 컴퓨터, 반도체, 메카트로닉스 등 기타 지식기반산업은 취약

- 다만, 자동차산업은 GM-대우자동차와 현대자동차의 입주로 지역 전략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부품 집적화단지, 자동차부품 혁신센터 등의 건설로 자동차산업의 메카로 발전할 잠재력 풍부
- 인력 및 기술혁신지원기능은 양적으로는 풍부하나 고급기술 및 기능인력은 부족한 실정임.
- 외국인을 위한 기업환경과 생활여건이 양호함.
 - 외국인을 위한 기업환경은 군산자유무역지역의 각종 인센티브와 저렴하고 풍부한 산업용지, 잘 구비된 각종 유틸리티 등으로 양호한 수준이며 전라북도의 외국기업 유치에 위한 노력도 높게 평가
 - 특히, 새만금 방조제의 완공과 더불어 고군산열도의 천혜의 관광자원, 골프장 건설, 차이나타운 건설, 외국인을 위한 주택단지 조성, 외국어고등학교의 설치 등으로 제반 생활여건 역시 우수한 편임.
- 현재까지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국제적 분업측면과 국내성장 거점으로서의 잠재력이 매우 풍부하고, 산업용지 및 산업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외국인 기업을 위한 교육, 관광, 레저 등 생활여건 등 입지적 물적 잠재력은 매우 풍부함.
- 다만, 1차산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지역산업을 선도할 중심산업 부재, 기술개발 및 고급인력 지원체계 등 지역혁신체제가 다소 취약함.
- 따라서 전북지역은 정보통신인프라와 고급인력에 대한 배출노력 등 혁신자원에 대한 집약도를 높이고,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과 정밀화학, 첨단운송장비산업 등의 지식기반산업에 특화한다면 전북지역의 전반적인 발전잠재력은 비교적 풍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3. 전라북도의 발전비전과 전략

(1) 발전비전과 주요 추진 전략

□ 비전 및 목표

- 지역 발전 중추인 핵심거점지역 전주-익산-군산-김제-정읍을 잇는 T자형 산업벨트의 혁신 클러스터 조성
 - 첨단 전략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성장과 전통문화 및 자연환경의 보존이 조화되는 지역발전모형 구축

□ 주요 추진전략

- 자동차·기계산업의 하드웨어 산업기반 구축 및 집적화를 통한 혁신클러스터 육성
 - 군산 자동차부품 집적화단지 조성 등 하드웨어 인프라 기반을 구축함과 아울러 자동차/기계 부품 기술·공정 혁신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정책을 추진하여 신성장 기반 마련
- 생물산업 및 생명공학산업 육성
 - 생물산업과 방사선 융합관련 생명공학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 구축과 기술개발을 지원
- 지연산업을 특화발전특구와 연계하여 육성
 - 귀금속산업, 순창장류·임실치즈, 한우관련 축산산업 등을 육성하여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 도모

(2) 전략산업 육성계획

□ 전략산업 및 주요사업

전략산업	주요사업
자동차부품 및 기계산업	· 자동차부품 집적화단지 조성 사업 · 첨단기계산업집적단지 조성 및 고도화 사업
생물산업	· 바이오파크 구축사업 · 건강기능식품 상용화 시스템 구축사업
방사선융합기술 및 대체에너지 산업	· 나노 방사선 영상기술 개발사업 · 새만금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전통문화·영상·관광산업	· 맞춤형 체험관광상품 활성화사업 · 전주 전통문화 중심도시 육성사업

□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투자비('03~'05년 국비지원현황)

(단위 : 천원)

			기계/자동차	기타	소계	
지역 전략 산업 진흥 사업	지역 산업 진흥 사업	지역산업기반 구축사업	32,534,000	-	32,534,000	
		기업 지원 서비스 사업	인력양성			0
			기술지원			0
			해외마케팅			0
			소소계	0	0	0
		전략산업기획단운영	-	3,230,000	3,230,000	
	소계	32,534,000	3,230,000	35,764,000		
	지역 혁신 산업 기반 구축 사업	인프라	500,000	1,260,000	1,760,000	
		인력양성사업			0	
		기업지원	-	240,000	240,000	
소계		500,000	1,500,000	2,000,000		
합계		33,034,000	4,730,000	37,764,000		
테크노파크조성			3,670,000	3,670,000	7,340,000	
지역 혁신 센터 사업	RIC(T)		4,760,000	2,600,000	7,360,000	
	RIC(R)		1,540,400	3,781,850	5,322,250	
	RIC(N)				0	
	소계		6,300,400	6,381,850	12,682,250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사업			4,000,000	-	4,000,000	
지방 기술 혁신 사업	지역R&D클러스터				0	
	지자체연구소육성			6,960,000	6,960,000	
	지자체주도연구개발지원			784,000	784,000	
	소계		0	7,744,000	7,744,000	
지역 혁신 특성화 사업	프로젝트사업		1,400,000	4,500,000	5,900,000	
	포럼활동지원사업			310,000	310,000	
	소계		1,400,000	4,810,000	6,210,000	

□ 추진실적

- 자동차부품 및 기계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및 클러스터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음.
 - 자동차부품산업 혁신센터 건축, 기계산업 리서치센터 준공, GM대우 RV디젤엔진공장 기공(4,750억원 투자), 인도 타타그룹 상용차 인수(3,650억원 투자) 등을 40여개 이상의 기업이 군산국가산단에 입주 등 성과
- 첨단 방사선 융합기술(RFT) 산업 인프라 구축에서도 나노급 방사선 의료영상기술개발사업(265억원), 정읍 첨단방사선 이용연구센터 개원 및 2단계 건축공사 시행(140억원)으로 방사선 기술을 이용한 의료·공업·환경·생명공학 등 첨단방사선 산업 유치 촉진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음.
-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기반 구축사업으로 풍력발전기 설치(750Kw 6기, 90억원), 바이오 디젤유 시범보급(1,937kl), 사회복지시설 등에 태양열 급탕시설(63개소) 설치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음.
- 생물산업 육성의 허브 기능을 하는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산업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전주 국제발효식품엑스포 및 남원 허브산업엑스포 등을 개최하여 바이오의 산업화를 선도함.
- 물류관련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기 위하여 호남선 전철, 전라선 복선화 완료, 군장간 철도도입 등 철도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음.
 - 익산-장수, 고창-장성, 전주-광양, 전주-논산, 88고속도로를 각각 신설하거나 확장하여 전국의 모든 지역을 반일권으로 구성하는 고속도로망을 구축함.

□ '06년도 추진계획

- 자동차·기계 산업 등 하드웨어 산업기반 구축 및 집적화
 - 군산자동차부품 집적화단지 14만평 조성
 - 기계산업리서치센터,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완공 및 운영활성화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생산거점화 : 연40만대 생산
 - 생산기반 확충, 전문인력, 생산시스템의 고도화
- 발효식품엑스포 개최, 의료실버산업, 기능성식품의 연구개발, 생물소재연구소 건립 추진
- 새만금 풍력발전단지 건설과 방사선이용연구센터 건립
- 전주전통문화 중심도시 육성, 소리축제, 서예비엔날레 개최로 전통문화예술 보전, 맞춤형 체류형관광지 개발로 5도 2촌의 최적지 조성 및 영상산업의 활성화 추진

□ '07년도 추진방향

- 4대 전략산업의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인프라 확충
- 산·한·연·관의 협력네트워크 활성화
- 기계산업 특화단지 조성 : 3만평, 100여개 업체
- 기계산업테크노벨리 조성 : 20만평, 700여개 업체
-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 등 RFT벨리 조성
- 생물산업, 문화관광자원 개발 및 전통문화 지속 보전 육성

<표 III-9> 전라북도 전략산업 육성계획

순위	구분	전략산업명	세부사업
1	핵심 전략산업	자동차부품·기계	자동차부품 집적화단지 고도화사업 첨단기계산업집적단지 조성 및 고도화사업 부품소재 및 생산용재 종합유통단지 조성사업 고기능/경량화신소재 실용화 기술개발 자동차 및 기계부품 핵심기술개발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
2		생물·생명	바이오제품 마케팅 인프라 구축사업 한방과학산업 정보화 네트워크 구축사업 식품 및 대사물질연구기반구축 및 교육사업 건강기능식품상용화시스템 구축사업 식품 콤비나트 구축사업 등 10개 사업
3	준전략산 업	방사선융합기술 및 대체에너지	RFT 및 대체에너지 종합육성사업 RFT 및 대체에너지 기업유치/창업지원사업 한국방사선 산업진흥원 방사선환경 감시연구센터 국립 연료전지성능평가센터 등 10개 사업
4		전통문화·영상·관 광	맞춤형 체험관광 활성화사업 전주 전통문화중심도시 육성사업 문화·관광산업연구 지원사업 전통문화예술 진흥사업 통합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10개 사업
5		물류	물류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대중국관련 물류유통단지 건설 대중국관련 물류DB 구축 전북물류산업체 총조사사업 물류인력양성사업

자료: 전북발전연구원, 「제1차 전라북도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 2004.

□ 전북의 지연산업 육성계획

○ 전라북도는 10대 지연산업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함.

- 귀금속·보석산업(익산), 니트산업(익산), 옷칠산업(남원), 장류산업(순창), 유가공산업(임실), 복분자산업(고창), 젓갈산업(부안), 한우산업(장수), 파프리카산업(김제), 허브산업(남원) 등

(3) 향후의 산업발전 추진방향

1) 지역산업 발전의 주요 추진전략

선택과 집중

- 기존 주력산업과 지식기반제조업 또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중에서 전복의 여건과 발전전략을 고려하여 핵심 전략산업을 선정
- 핵심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
- 지역의 향토자원을 활용한 지연산업부문에서도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 전략 추구

산업별·지역별 클러스터 형성 추진

- 산업별 육성방안과 혁신체제를 구축하고, 클러스터의 구축 촉진
- 전주권, 군산권, 익산권 등에 신산업 클러스터 형성
- 해안지역과 내륙지역의 농어촌지역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1시군 1명품의 브랜드 클러스터 육성

산·학·연·관·민의 상호협력적 지역혁신체제 구축

- 기업-대학-민-관 간의 상호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과 실천성 제고
- 인력 수급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협력 촉진
- 지역 상공인들이 지역산업발전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이들의 역할을 강화
- 공정한 평가제도를 통한 지원기준 마련과 사후관리

□ 신산업 육성과 지식기반 강화를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 국제적인 인력, 대학, 연구소, 기업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그랜드 프로젝트 추진
- 산학연 기술혁신기반 조성과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 장인의 우대와 장인정신의 계승을 위한 지역분위기 조성
- 대학의 기술혁신인력의 양성을 위한 지역연구센터 활성화
- 지역 상공인과 지역민들의 경영의식 선진화를 위한 교육

□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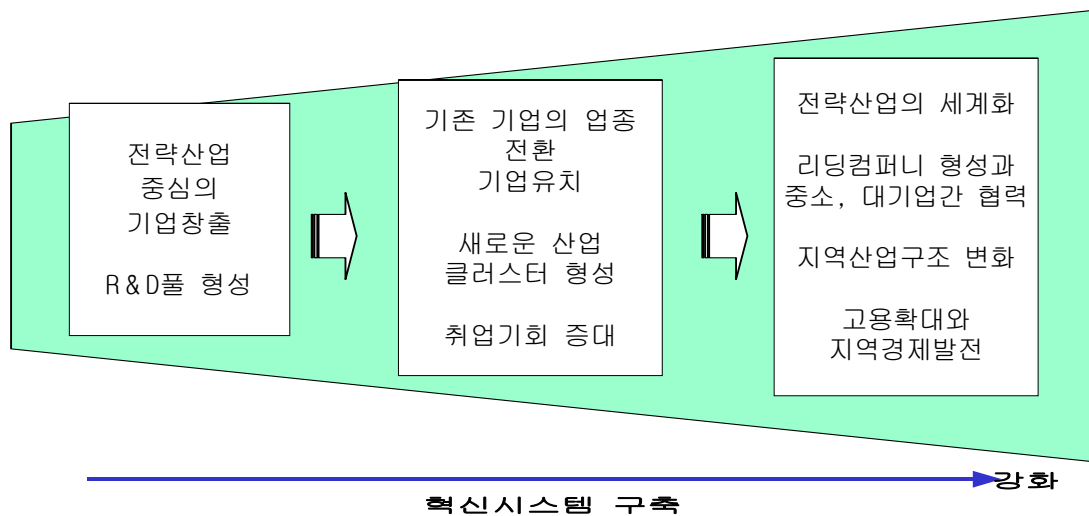
-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등 특별경제지구 조성
- 기업주도의 종합적 산업지구인 「기업도시」의 적극 추진
- 교육, 문화, 여가 등 친환경적 도시생활환경 조성
- 불필요한 제도개선과 적극적인 기업지원체제 구축
- 기반시설의 지속적 확충
- 노사간의 협력과 기업에 대한 지역민의 협력 문화 정착

□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마케팅 시스템 구축

- 지역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선도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인센티브제도 도입
- 기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대기업 협력관계 제고
- 지역산업 상품 수출과 시장확대를 위한 마케팅전략 강화
- 지역문화, 특산물, 환경 등의 자원을 활용한 지적 상품개발

□ 단계별 추진전략

- 전략산업 중심의 R&D기반을 구축하면서 기업의 유치 및 창업을 촉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클러스터 기반을 조성
- 장기적으로는 세계적 브랜드 기업을 유치하여 전북산업의 세계화 추진



2) 전북 산업발전을 위한 핵심 추진과제

□ 지역산업발전의 두 가지 길

- 지역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의 길이 있음.
- 첫째는 외생적 발전전략으로서 역외기업의 유치를 통한 이식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임.
 - 외생적 발전전략은 생산자원(기업, 자본, 인력 등)의 인위적인 지역 이동에 기초한 발전모형으로서 낙후지역에서 비교적 단기간에 산업발전을 촉진하는 매우 유효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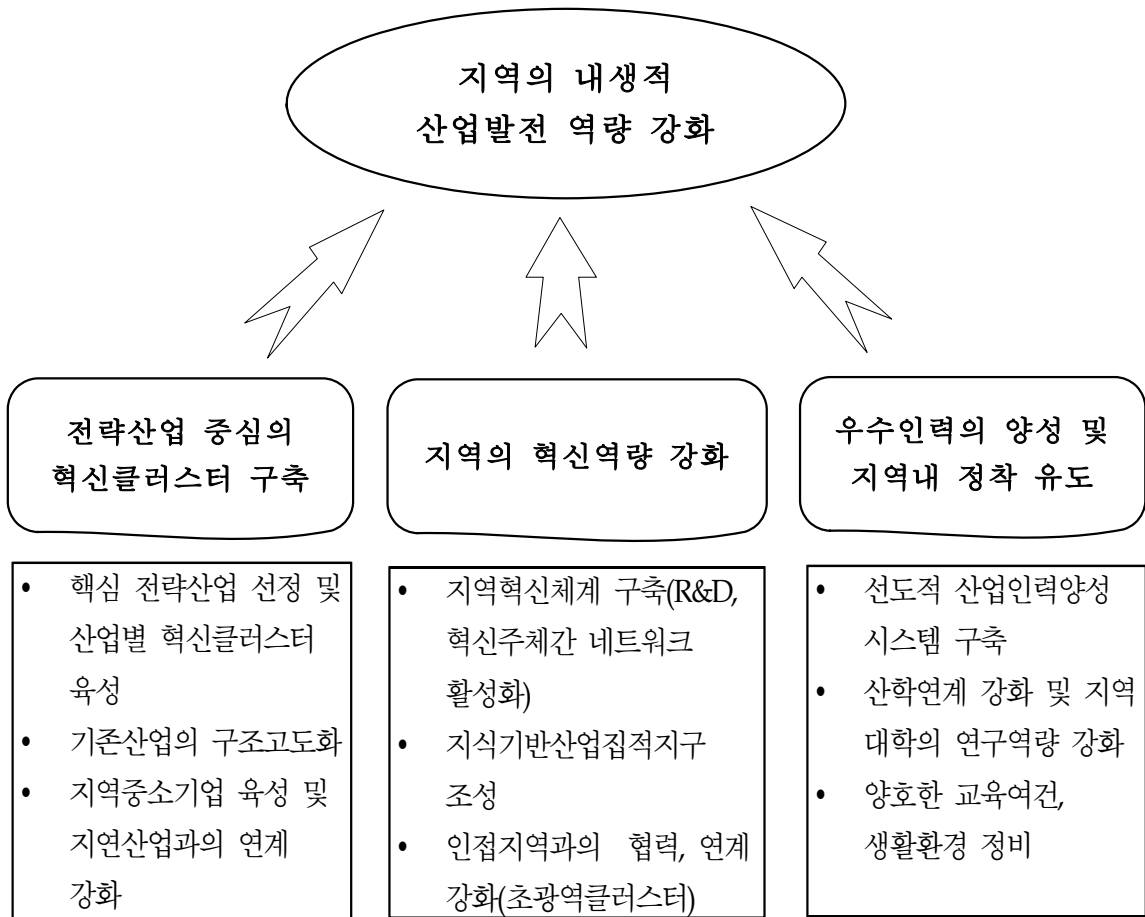
- 이 전략에 있어서는 산업단지의 조성, 도로, 항만 등 광역교통시설 구축,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등의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환경 정비가 핵심적인 과제임.
- 둘째는 내생적 발전전략으로서 지역내의 혁신역량 강화, 창업의 활성화, 기업가정신의 고취 등 자생적인 산업발전 여건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는 전략임.
- 이 두가지 전략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 보완적인 성격을 가짐. 그러나 산업발전 패러다임과 환경의 변화, 지역의 여건에 따라 전략의 상대적 중요성과 강조점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
- 최근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과 세계화 속에서의 지역간 경쟁의 심화로 인해 지역산업 발전패러다임이 기존의 외생적이고 이식형적 발전전략에서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개발하고 혁신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생적 발전전략으로 전환하고 있음.
-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과 함께 생산의 주체인 기업 자신이 저렴한 생산요소를 찾아 생산시설을 이동시키던 것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혁신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 지역에 입지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음.
- 또한 지역의 입장에서든 군산권의 자동차부품산업의 예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지역내의 산업연계와 다양한 혁신주체간의 결합, 지역의 왕성한 기업문화와 접목되지 않으면, 외부의 이식형적 기업유치가 지역의 산업발전과 삶의 질 제고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을 수밖에 없음.
- 결국 역사의 발전단계에 비약이 없듯이 지역의 산업발전도 지역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일정 정도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새로운 도약이 가능한 것임.

□ 전북 산업발전을 위한 핵심과제

○ 그간 전북지역의 산업발전 전략은 외생적 발전에 중점을 두어 왔고, 그 전략하에서 산업발전을 위한 하드웨어적인 기반을 일정 정도 갖추는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음.

-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서해안고속도로 등의 광역교통시설 확충 등이 그간의 주요 성과라고 할 수 있음.

<그림Ⅲ-1> 전북 산업발전을 위한 핵심 추진과제



○ 그러나 향후에는 외생적 발전전략에 따른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하여 새로운 도약을 위한 “지역의 내생적 산업발전 역량 강화”를 핵심과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지역의 내생적 산업발전 역량 강화를 위한 주요 4대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음.

- ① 전략산업 중심의 혁신클러스터 구축
- ②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
- ③ 우수인력의 양성 및 지역내 정착 유도
- ④ 이전 공공기관과 전북 산업발전의 연계

□ 제1과제 : 전략산업 중심의 혁신클러스터 구축

○ 핵심 전략산업의 선정 및 클러스터 형성 촉진

- 기존 주력산업과 지식기반제조업 또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중에서 전북의 여건과 발전전략을 고려하여 집중 지원을 위한 핵심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지역 전체적인 클러스터 형성 방향 제시

○ 선정된 핵심 전략산업별로 산업클러스터 육성방안과 기존산업의 구조고도화 방안을 마련

○ 전북경제의 내발적 발전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며 아울러 지연산업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할 필요

□ 제2과제 :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

○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 지역산업 육성의 기본방향은 전략산업 부문의 지식창출, 확산, 활

용이 효율적, 상호작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 대학, 연구소, 지원기관들을 일정한 지리적 공간에 집적시키고 상호간의 긴밀한 네트워크의 형성을 도모하는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 지역혁신체계의 구성요소 중 취약한 혁신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

○ 지식기반산업의 집적 촉진

- 지역혁신체계를 지구단위에서 구현하는 물리적·소프트웨어적 기제로서 지식기반산업의 집적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

○ 인접 지역과의 협력·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초광역클러스터 육성

□ 제3과제 : 우수인력의 양성 및 지역내 정착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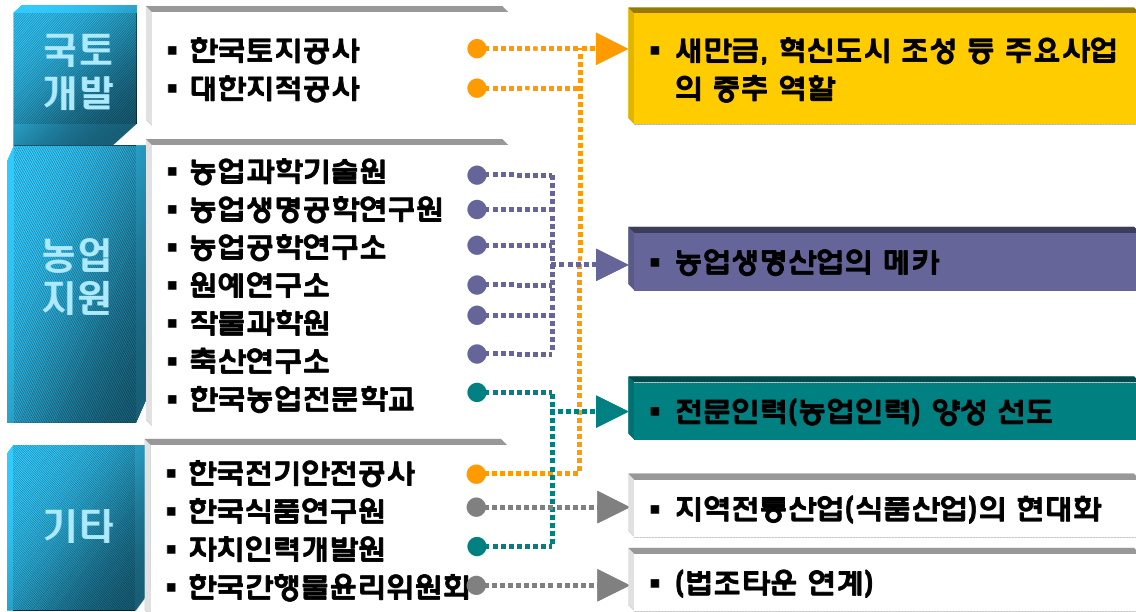
○ 선도적 산업인력 양성시스템 구축

- 지역의 산업인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인재의 역내 정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내발적 발전의 요체이므로 이를 위한 지원정책 마련

○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

○ 산학연 연계강화 및 지역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 제4과제 : 이전 공공기관과 전북 산업발전의 연계



- 농업관련 기능군의 공공기관을 바탕으로 전북의 농업 및 농업관련 산업의 혁신력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함.
- 국토개발관리군의 이전을 통해 '환황해권 시대의 중심지 부상'의 전북 비전 달성을 위한 지역개발의 새로운 추진력을 보유하는 계기로 활용함.